



비유에스아키텍처는 건축과 공간을 매개로 일어날 수 있는 유의미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도시, 문화, 사람 간의 다양한 관계 설정에 주목하고 건축의 '구축'보다 '과정'에 집중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비유에스의 뜻은 철자 그대로 버스(bus)라는 소통의식에 대한 의지와 '규정되지 않은 시작점(By Undefined Scale)'이라는, 비유에스가 추구하는 방법론을 가리킨다.

B.U.S Architecture, co-founded by Park Jihyun and Cho Seonghak in 2014, is based on the meaningful imaginative drive that may arise through architecture and space as media. B.U.S Architecture pays attention to the setting-up of the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cities, cultures, and people and continues to work on 'process' rather than on the 'construction' of architecture. In this context, B.U.S. refers our will toward communication consciousness known as bus. As its spelling indicates, 'By Undefined Scale', the very method that we pursue is 'the undefined scale' or the 'undefined starting point'.

비유에스아키텍처

공동대표 박지현(1986) 조성학(1986)

설립연도 2014

웹페이지 bus-architecture.com

B.U.S Architecture

co-principals Park Jihyun (1986)

Cho Seonghak (1986)

established in 2014

website bus-architecture.com

스카라브레, 2018

Skarabrae, 2018

ARCHITECTURE

B.U.S

비유에스
아키텍처

‘비유에스(B.U.S)’라는 이름이 ‘버스’로 읽히기도 한다.

비유에스아키텍처(이하 비유에스)는 건축과 공간을 매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도시, 문화, 사람 간의 다양한 관계 설정에 주목하며 작업하고 있다. 비유에스라는 이름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규정되지 않은 시작점(By Undefined Scale)’이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비유에스의 구성원들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서로를 부를 때 직책보다 이름을 부르고 존댓말을 사용한다고 들었다.

실무를 하다 보니 학교의 설계 스튜디오와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수평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다. 각자 회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주택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주말마다 모여 작업하면서 지금의 비유에스로 이어졌다. 개소 당시 IT 스타트업과 한 공간에서 일했는데, 가장 트렌디한 분야의 기업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스타트업의 실행력과 마케팅 방식에도 눈길이 갔다. 여러 모로 영향을 받았다.

현재 대중은 어떤 건축을 원하고, 건축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예전에는 건축 시장이 다양하지 않았다. 건축가는 작가이거나 아예 ‘집장사’였던 것 같다. 요즘 젊은 건축주들을 보면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 공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는 욕구가 보인다.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건축적인 과정이 유연해야 하는데, 우리도 존경하는 작가주의 건축가들이 여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찾아오는 건축주들 중에 그들에게 상담받다가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다. 앞서한 말과 관련해, 기존에 집장사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진 부분에 젊은 건축가들이 일할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을 자세히 보면 건축물을 짓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건축주들의 생각과 이어져 있다. 건축가로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잘 실현해 사회에 더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유에스는 어떤 건축을 지향하는가?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상상 속에서 지낸다. 실재하지 않는 요정과 동물들, 잠든 사이 굴뚝으로 다녀간 산타 등 동화 같은 이야기들에 빠져들곤 한다. 우리는 비유에스의 건축 속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더 믿음직해 보였으면 한다. 상상을 통해 비유에스가 실현하는 건축이 유연하고 풍부해진다고 믿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건축이 진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우리의 건축이 사람들에게 좀 더 즐겁고 재미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Roh Kyung



엄지척빌딩, 2014
THUMB UP BUILDING, 2014

©Roh Kyung



고고익선, 2016
Gogoikseon, 2016

The name 'B.U.S' is also read as 'bus'.

Based on the imagination of things that can happen through architecture and space, B.U.S Architecture (hereinafter B.U.S) focuses on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cities, cultures and people. The name B.U.S reveals the willingness to communicate with people, and it also refers to the methodology we pursue as 'By an Undefined Scale'.

The members of the B.U.S were close in age. When they called each other, they used their names rather than their position and used the honorific.

When I was practising, I realised that I wanted a free atmosphere and a horizontal relationship. Each of us went to a company, and by chance, we were assigned to a housing project. And we gathered every weekend, which led to the present B.U.S. At that time, I worked in a space with IT start-ups,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stay close to companies from the trendiest sectors. It was impressive for its members to create a culture that they could continue to sympathise with, and the launching power and marketing method of the start-up was also noticeable. I was affected in various ways by them.

What kind of architecture does the public want now, and what role should the architect play?

In the past, the architecture market did not vary. The architect seems to have been an artist or a 'estate agent'. Nowadays, young clients have a desire for their own space. I can see a desire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space. To respond to these demands, the architectural process must be flexible, and it seems that it is not easy for artist-like architects to respect us. Some of the clients who come to the office said that they get told off when they consult with them.

With regards to the foregoing, there is a chance for young architects to work in what is already considered the area of house business. While looking closely at these projects, it is not limited to building structures. It is linked to the client's thinking about sustainable lifestyles and a way to live. As an architect, I think it is important to inform society of the realisation of these projects.

What kind of architecture does B.U.S focus on?

During childhood, everyone lives in their imagination. Children often fall into fairytales, dreaming of characters such as fairies and animals that do not exist. We hope that fairytales seem more reliable in the architecture of B.U.S. Through the work of this imagination, I believe that the architecture realised by B.U.S is flexible and enriched. There is a stereotype that architecture in Korea should be serious. I often think that our architecture would make people more enjoyable and fun.

B.U.S Architecture

박지현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매니페스토 아키텍처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4년 비유에스아키텍처를 설립했다.
조성학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스튜디오 케이웍스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4년 비유에스아키텍처를 설립했다.

Park Jihyun received his Bachelors of Science in Architecture from Soongsil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has worked in a diverse range of firms in Seoul and co-founded B.U.S Architecture in 2014.

Cho Seonghak received his Bachelors of Science in Architecture from Soongsil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has experience at various firms, including studio_K_works and co-founded B.U.S Architecture in 2014.